

#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대테러 경호·경비 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Strategy for Korean Companies Engaged in the Overseas Business

최진태

〈목 차〉

I. 서론	III. 해외진출기업의 테러 대응발전 방향
II.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테러분석	IV. 결 론

### 〈요 약〉

테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테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테러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테러조직의 공격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도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는 있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테러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테러조직들이 국제적인 대도시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물론이고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설 현장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업들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2005년 6월 그리고 2006년 1월에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대우건설 근로자 납치사건 그리고 현대중공업 선박에 대한 무장 공격 사건 등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할 것이다.

테러 조직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미리 세워 유사시를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테러, 대테러, 대테러 경호·경비, 인질, 납치, 보안

\*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

## I. 서론

2006년 6월 7일 하트코트(Hartcourt) 항에서 대우건설 및 가스공사 직원 5명이 납치되어 41시간 만에 석방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어, 2007년 1월 10일 또 다시 나이지리아 남부 바엘사(Bayelsa)주 대우건설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9명이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우건설 근로자들을 납치한 무장 세력은 전체 50여명으로, 고속정 3대에 나눠 타고 인근 늪지대 수로(水路)를 통해 현장으로 접근했으며, 새벽 시간에 경계가 소홀해 지는 틈을 타고 급습하여 현장에서 경비를 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을 제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정부 당국의 지원 하에 현지 비선채널을 가동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다행히 60여 시간 만에 납치된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모두 석방되었다.

그리고 일주일만인 17일 나이지리아 남부 니제르델타 지역 하트코트(Hartcourt) 항에서 석유정제 플랜트 건설사업 현장으로 이동하던 현대중공업 소속 여객선을 2척의 배에 나눠 탄 10여 명의 무장 괴한들이 총을 쏘며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1명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고, 네덜란드 출신 감독관과 현지 경비 요원 등 2명이 숨지고 현지인 5명이 부상했다. 무장 괴한들은 16명 정도로 여객선에 난입해 배 안에 있던 물품과 탑승자들의 금품을 강탈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연쇄적인 테러 사건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테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등장했음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었다. 사실 기업이 테러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도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전체 테러 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기업에 대한 테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국경 없는 경제의 발전, 산업화 그리고 국제화의 가속으로 기업 시설이 급증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등장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공격 후 퇴로 확보가 용이함과 동시에 보안 및 경계 체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테러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들 상업 시설은 일단 공격을 받으면 복구가 쉽지 않고,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구의 기업들은 기업 및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

주하기 시작했으며, 해외에 진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설과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 강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위험 지역에 진출하면서 완벽하고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최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경호 및 경비 체계를 갖추는데 소용되는 비용 문제 등으로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한국인 근로자 납치 테러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업과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질 납치 테러는 테러 조직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전술로 인식되고 있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테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테러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테러 환경은 물론 한국 기업의 테러 피해 현황을 고찰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대테러 경호경비 전략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경호경비 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 II.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 분석

### 1. 일반 현황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총 3만 1천 4백 82건의 테러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4만 6천 81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7천 1백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8백 7건의 테러리즘으로 인해, 1천 1백 82명이 사망하고, 2천 7백 46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 중에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3천 5백 59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천 4백 95명이 사망하고 1만 3천 7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발생 건수로 보면 일반시민 및 사유재산(5,514건), 정부기관 및 요인(4,961건), 경찰(4,051)에 이어 세 번째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는 연 평균 91건이 발생하여, 1백 41명이 사망하고 3백 51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표 2 - 1〉 공격 목표별 테러 발생 현황(1968-2006)

공격목표	발생 건수	부상자	사망자
낙태관련	5	2	2
공항 및 항공사	809	2,395	2,181
기업체 및 근로자	3,559	13,702	5,495
외교시설 및 외교관	2,689	8,466	1,206
교육기관	650	1,494	599
식료품 및 상수도	12	5	0
정부기관 및 요인	4,961	10,298	5,243
기자 및 언론기관	608	409	302
해상교통수단 및 시설	132	293	130
군 관련 시설 및 군인	821	4,681	1,611
비정부기구	347	301	330
기타	2,161	2,831	2,582
경찰	4,051	13,527	7,655
일반시민 및 사유재산	5,514	23,989	11,542
종교인 및 종교시설	1,298	6,724	2,501
통신관련 시설	162	79	64
테러범 보복	272	544	462
관광객	260	1,875	676
교통수단	1,241	13,805	2,646
미확인	781	1,127	418
일반시설	1,149	558	436
합계	31,482	107,105	46,081

(자료출처: National Memorial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MIPT), Terrorism Knowledge Base)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기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테러는 1970년대 이래 계속적으로 발생 건수가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테러는 발생 건수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6백 29건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2천 7백 31명이 늘었고, 부상자도 2천 2백 70명이나 증가했다. 둘째,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로 인한 단일 사건 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테러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사건 당 사망자 수가 1970-1979년 사이가 0.725명이고, 1980-1989년까지는 1.15명으로 늘어났다. 1990-1999년의 경우 사건 당 사망자 수는 1.23명으로 또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00-2005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사건 당 사망자 수는 1.59명으로 나타났다.(최진태, 2006: 42) 기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테러의 심각성은 사건 당 사망자 수가 3명으로 전체 테러 통계와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 2〉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 현황

연도	발생건수	부상자	사망자
1970-1979	455	325	97
1980-1989	681	1,133	193
1990-1999	880	4,983	1,236
2000-2006	1,509	7,253	3,967

(자료출처: National Memorial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MIPT), Terrorism Knowledge Base)

테러로 인한 사건 당 사망자 수의 증가는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1980년대 이후 과격화되기 시작한 테러리즘으로 인한 사상자 수의 증가와 사건 당 사망자 수의 증가는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격 수단이 되는 무기의 성능 향상에 기인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기의 소형화가 달성되어 은닉이나 운송이 용이해짐과 동시에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테러리즘이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테러범들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테러리즘으로는 관심을 끌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테러리즘으로 인해 일반 대중과 언론이 단련되어 졌고 충격에 무감각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사상자의 수가 적어도, 사건 자체만으로 관심의 집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극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으면 과거에는 가능했던 상징적,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테러범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테러리즘의 대규모화 및 무차별화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국가 지원 테러리즘의 지속이다. 주권 국가의 테러리즘 지원으로 인해 평범한 테러 단체의 공격 능력과 파괴력이 향상되어, 과거에는 조잡한 수준의 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전부였던 단체들이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무장 등을 통하여 특수정예부대의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네 번째, 종교적 동기에서 자행된 테러리즘의 증가가 사상자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슬람 시아파(Shia) 테러리스트 단체의 테러 활동과 1990년대의 많은 대형 사건이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 동기를 지닐 경우 더욱 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교적 동기의 테러리즘은 일반적인 목적의 테러리즘과는 달리 종교적 테러 단체의 극단적인 가치체계, 합법화 및 정당화 기제(基劑), 윤리관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종교적 목적을 가진 테러리스트 단체에 있어서 폭력은 성스러운 행동이거나 신성한 의무(Divine Duty)로서 직접적으

로 종교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해 자행되고 성전(聖典)을 통해 정당화된다.

## 2. 지리적 발생 현황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중동 및 페르시아 만 지역으로 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서유럽(17%), 남아시아(15%), 남미(11%) 순이다.

〈표 2 - 3〉 지역별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1968-2006)

지역	비율(%)
아프리카	3
동중아시아	1
동유럽	4
남미	11
중동/페르시아 만	41
북미	2
남아시아	15
남동아시아&오세아니아	5
서유럽	17

(자료출처: National Memorial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MIPT), Terrorism Knowledge Base)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이 태동했던 중동 및 페르시아 만 지역은 테러의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테러의 중심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오랜 영토 분쟁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9.11 미 테러 이후 시작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테러 보복전쟁 그리고 연이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또 다시 테러 다발 지역이 되고 있다.

서유럽과 남미는 꾸준히 테러리즘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서유럽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했던 영국에서의 테러는 북아일랜드의 평화 진척에 따라 거의 종식되는 단계에 도달해 있고, 적군과 그리고 붉은 여단 등이 활동했던 독일과 이탈리아 지역은 극좌파 세력 해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그 동안 테러의 다발지역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테러의 안전지대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테러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통합하여 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보면 중동 및 페르시아 만에 이어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가 21퍼센트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특히 2001년 말부터 테러 발생 건수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에서 나타났듯

이 테러리즘의 양상도 점차 대형화되면서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3. 주요 공격 유형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의 유형은 다른 공격 목표물에 대한 일반적인 테러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테러 유형을 살펴보면 총 1천 5백 8건의 테러 중에 폭탄테러는 9백 66건으로 무려 64퍼센트를 기록하여 대표적인 테러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2 - 4〉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 공격 유형(2000-2006)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무장공격	1	7	12	14	31	50	33	148
방화	22	37	23	21	18	17	2	140
암살	2	1	4	3	1	0	1	12
폭탄	135	162	160	150	174	164	21	966
납치	1	6	5	2	25	13	161	213
기타	1	3	3	1	1	0	0	9
미확인	6	4	3	1	5	1	1	21
합계	168	219	211	192	255	245	218	1,508

그리고 납치(213건), 무장공격(148건), 방화(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업체에 대한 테러 협박, 특히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협박도 주된 테러 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인질 납치 테러

인질 테러 사건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인을 유괴 또는 납치하여 억류시키거나 시설물의 사용자 및 교통수단 탑승객들을 억류시킨 후 납치자의 요구사항을 관찰시키기 위해 매개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건을 말한다. 즉, 테러범들은 정치, 사회, 민족, 종교 등과 같은 상징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정 목표인물을 납치·유괴하여 감금 및 억류한 후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특정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동 인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인질의 국적 국가 혹은 관련 국가 또는 정부당국에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인질 사건을 자행하는 목적은 첫째, 선행 테러 사건이나 배후 혐의로 구속된 자신들의 동료 석방, 둘째, 테러조직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질의 석방에 대한 금전적 대가 요구, 셋째, 테러 자행 후 혹은 체포 위협 상황에서 안전지역으로

의 도피를 위한 피난처 및 이동수단의 제공 요구, 넷째,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기 위한 특종사건의 보도 등을 위한 성명서의 발표 종용 및 요구 다섯째, 특정 정치인의 석방 요구 등으로 다양하다.

테러범들에 의한 인질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인질사건의 발생초기에는 테러범 측에서 사건의 상황을 완전히 제압하고 통제하게 되며, 사건해결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테러범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테러범들에게는 정치적·사상적으로 확신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있어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며, 지능적이고 사전에 훈련이 잘 되어 납치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진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와 인질들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테러조직들이나 정부 또는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계획과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운 뒤 실행된 상태이지만 만약 실패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상황 하에서 매우 흥분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테러범들은 인질의 탈출기회 방지와 정부군의 무력공격에 대한 불안감으로 호전성을 보이거나 인질들을 난폭하게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 초기의 분위기는 테러범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이 훨씬 높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격들 때문에 테러범들에 의하여 발생한 인질사건은 대응전략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억류된 인질을 성공적으로 구출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것이다.

## 2) 폭탄 테러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는 용기에 충전된 폭약을 폭발시킴으로써 시설파괴 및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테러조직의 상투적인 전술이다. 1968년부터 2005년까지 2만 4천 6백 1건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에 58%인 1만 4천 2백 89건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무장 공격(4387건), 암살(2264건), 납치 및 유괴(1823건) 순이다.(최진태, 2006: 49) 테러조직이 폭탄테러를 선호하는 구체적인 이유에는 ① 준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② 준비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③ 제작이 간단하다 ④ 은닉 및 위장이 용이하다 ⑤ 목표에 접근하기 쉽다 ⑥ 설치가 간단하다 ⑦ 다수인원에 대한 살상 효과가 있다 ⑧ 성공률이 높다 ⑨ 흔적 제거가 쉽다 는 것 등 이다. 아울러, 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의 경우 예방은 물론 사후 대처도 매우 어렵고, 일단 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배후 세력을 밝히는 것조차 어려우며, 금속탐지기의 발전으로 각종 금속성 무기류(총기 등)는 사전에 검색이 가능하나 폭약 자체는 금속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사전검색을 피할 수 있다는 전술적



이점이 있어 테러조직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폭탄을 이용한 기업 시설에 대한 테러는 주로 차량 폭탄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량폭탄은 많은 양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공격 목표로의 이동이 용이해 무차별 폭발물 테러에 자주 이용된다. 차량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는 크게 직접 공격 방식과 간접 공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공격 방식은 테러범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폭발물을 탑재하고 공격 목표 근처에 주차시킨 후 폭발을 시키는 방법과 테러범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공격 목표에 충돌하는 자살 폭탄 공격 등이 있다. 간접 공격 방식은 주로 요인 암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테러 대상 인물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에 은밀히 접근하여 폭발물을 부착 폭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접 공격 방식의 경우 폭발물은 엔진, 트렁크, 차량 하부, 예비 타이어 보관 공간 등에 설치하며, 세밀한 점검이 없이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차량 폭탄에 이용되는 것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일상 생활에서 이용하는 승용차, 앰블런스 등과 같은 특수 자동차, 그리고 대형 트럭, 레미콘 차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차량이 이용된다.

### 3) 무장 공격

무장공격은 테러공격 대상에 대하여 권총, 기관총, 로켓포,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수류탄 등을 투척함으로써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인명을 살상하는 전술형태를 의미한다. 공격의 방법이 되고 있는 무기들이 정교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크며, 공격 방법 면에서 잔인성과 대담성을 보여 주고 있어 공포심과 사회혼란을 최대한 조성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범의 생존을 높이고 대량살상이 가능하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한 무기 중 총기류를 이용한 사건 수가 무려 175건이다.

무장 공격에 동원되는 무기는 자동화기에서부터 SAM-7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무기는 밀거래 조직을 통해 혹은 무기 판매 암시장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다. 무장 공격은 단순하게 요인에 대한 공격 수단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 예로 2003년 11월에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범이 케냐의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륙하는 이스라엘 항공기를 향해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있다.

### 4) 방화 테러

사회적으로 최대한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발화물질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통

상적으로 단순 방화 사건과는 달리 테러조직은 공포 확산을 위해 대형 방화를 획책하거나 연쇄적으로 방화하는 수법을 동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 테러의 수단으로는 단순하게 기업체 시설물에 접근하여 원시적인 방법으로 발화를 시키거나, 근거리에서 접근하여 화염병을 투척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화염병은 유리병에 휘발유나 화염제를 넣은 방화유탄이다. 화염병에는 유리병 속에 가솔린만을 담은 것으로부터 가솔린과 진한 황산을 섞어 넣고 바깥에 염소산칼륨을 칠한 종이를 붙여 병이 깨질 때 황산과 염소산칼륨의 접촉으로 발화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제2차세계대전중 모스크바와 이탈리아의 도시게릴라들이 독일군 전차 파괴 등에 사용하였고, 대전 후에는 1952년 무렵부터 일본공산당이 사용하기 시작하여 학원가에 퍼졌으며, 최근에는 테러 조직이 방화 테러에 이용하는 무기로 등장했다. 방화 테러의 주된 목적은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복구상의 어려움을 유도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5) 기업 시설에 대한 폭탄 테러 협박

테러는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협박도 명백한 테러이다.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협박이 테러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테러범들은 폭발물을 설치했을 경우 혹은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고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협박을 통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고, 테러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 광범위한 공포분위기 확산이 가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협박의 주된 원인이 된다.

폭발물을 이용하는 전화 협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실제 폭탄이 장치되어있을 경우는 보통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만약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폭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단순히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에 대한 협박전화는 실제로는 아무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 악의어린 장난이 대부분이다.(최진태·이영철, 2004: 23-24) 하지만 그중에 진짜 테러범에게서 걸려오는 협박 전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그 협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테러 협박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신하는 사람이 속해있는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 전화 둘째, 다른 건물의 폭탄 공격에 대한 협박 전화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 해두어야 한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근무 시간 중

에 혹은 야근하는 시간에 직원 중에 누군가가 받게 된다. 따라서 폭탄 테러 협박 전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4. 한국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 전망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로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상대적으로는 테러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9.11 테러, 그리고 김선일 사건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테러는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말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알 카에다의 테러 공격 1순위는 미국, 영국, 호주이며, 테러 2순위는 일본, 한국, 필리핀 순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한국이 테러 대상 국가에 포함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새로운 혹은 놀라운 사실이 결코 아니다. 2004년 10월,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는 알자지라 위성 TV를 통해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호주, 일본, 폴란드 군대가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예멘이나 알제리아를 침공하기 전에 오늘 지금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고 외쳤다. 그는 “이들 나라는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체첸 침공에 가담했거나 이스라엘의 생존을 도왔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국가는 하나씩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며 미국과 영국 및 한국, 호주, 일본 등 이라크 파병 국가를 테러대상으로 지목했다.

지금까지 이라크를 포함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직간접 테러 자행 및 테러 시도가 20여건 이상 발생했다. 아울러 테러조직이 인터넷을 통해 테러 자행에 대한 협박을 시도하는 소위 ‘디지털 지하드’도 20여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테러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거주가 늘었고, 단순 해외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테러리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리즘의 유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과 외교시설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다. 외교관과 외교 시설은 상징성이 높다. 따라서 대테러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공격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둘째, 해외 여행객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다. 199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이후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여행 대상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로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목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셋째, 해외 거주 교포들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극단적인 인종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은 물론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국제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체에 소속되어 해외에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기업이 테러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005년 이후 나이지리아에선 한국인 근로자 납치사건이 3건 발생하는 등 현대 중공업 선박에 대한 피습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의 한국인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이 나라엔 현대중공업 직원 등 8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또 다른 납치나 피습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2 - 5〉 한국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주요 테러 일지(1997-2006)

일자	사건개요
1997.10.15	스리랑카 콜롬보 소재 세계무역센터 건물 폭탄테러로 LG전선 직원 등 2명이 부상
1998.04.06	예멘 현대건설 아덴현장에서 지뢰형식 매설 수류탄 사전 적발
1998.08.26	그리스 아테네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소형 사제 시한폭탄이 폭발하여 유리창 등 건물 일부 파손
1999.02.03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주재 (주)대우 지역본부 권○○ 사장(50세)이 현지 숙소 주차장 앞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
1999.08.11	일본 동경에서 컴퓨터 회사를 경영하는 안○○(57세)이 동경 자택 앞에서 괴한이 쓴 권총에 맞아 사망
1999.10.31	필리핀 루손섬에서 국도 확장공사 중이던 경남기업 현장 사무소가 「신인민군」의 습격을 받아 금품강탈 등 피해 발생
2001.01.16	인도네시아 '자유 파파아 운동'(OPM)이 이리안 자야 원목캠핑에 근무하는 현지법인 코린도社 한국인 직원 2명 및 현지인 직원 11명 인질납치. OPM은 1.19 인질협상차 방문한 코린도社 한국인 직원 1명과 현지인 2명을 추가로 억류
2003.11.30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주)오무전기 근로자 4명이 후세인 잔당으로 추정되는 테러분자들에 의해 피격·사상
2004.05.31	이라크 주재 가나무역 직원 김○○(34세)이 저항세력에 피랍, 6.22 팔루자 인근 도로변에서 참수된 시체로 발견('유일신과 성전' 단체가 6.21 '알 자지라' TV를 통해 한국정부가 24시간 내 파병군을 철수하고, 추가파병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
2006.02.15	파키스탄 서북부 '페사와르' 지역에서 서방 언론의 「무함마드」 풍자만평에 불만을 품은 7만여 명의 시위대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운송업체 (주)삼미대우가 운영중인 버스터미널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 시위대 일부가 버스터미널에 불을 질러 터미널 건물과 주차되어 있던 삼미대우 소속 버스차량 17대·승용차 3대·미니밴 3대가 전소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현지인 직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음
2006.06.06	현지시간 23:30경(한국시간 6.7 07:30)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해방운동' (MEND) 조직원 30여명이 니제르델타 「보니」 섬에서 석유·가스 플랜트 건설 중이던 아국 기업건설 현장을 습격, 우리 근로자 5명을 납치한 후 수감중인 지도자 「도쿠보 아사리」의 석방을 요구다 6.8 16:20 (한국시간 6.9 00:20) 협상을 통해 전원 석방

<자료출처: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 Ⅲ. 해외 진출 기업의 테러 대응 발전 방향

#### 1. 조직적 접근

##### 1) 기업의 대테러에 대한 인식 전환

대한상공회의소가 2004년도 10월에 서울 소재 220개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테러위험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국제 무장단체의 테러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04). 테러위험 사태의 심각성 질문에 60.3%가 심각하다(‘매우 그렇다’ 17.2%, ‘약간 그렇다’ 43.1%)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기업들의 테러위험에 대한 상황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은 상당히 소홀하거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대비책 마련 여부에 불과 1.4%만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고, 3.4%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전체 95.2%가 마땅한 테러대비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다른 대응책 없이 관망 중’ 51.7%, ‘필요성을 못 느낀다.’ 43.5%).

테러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의 테러 대응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특히 최고 경영자의 대테러 보안 대책 강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Juval Aviv; 2004, 231) 기업의 경영자들이 테러의 위협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떡이다가도 막상 테러 예방을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소모성 경비라고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러 방지 장비, 조직, 시설 등을 갖추면 보험료 자체가 떨어지는 등 실제로는 생산적 투자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구비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최진태, 2005: 44) 테러에 대한 대비 소홀로 인해 테러가 발생하면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한 번의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파산한 미국 팬암(Pan Am) 항공사의 경우에서 기업들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테러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3 - 1〉 한국 기업의 테러대비책 유무 현황

( )안은 응답 업체 수

구분	전체(% , 개)	대기업(% , 개)	중소기업(% , 개)
① 이미 마련되어 있음	1.4(3)	2.4(1)	1.2(2)
② 마련 계획이다	3.4(7)	7.1(3)	2.4(4)
③ 별다른 대책 없이 관망 중	51.7(108)	66.7(28)	47.9(80)
④ 필요성 못 느낀다	43.5(91)	23.8(10)	48.5(81)
합 계	100.0(209)	100.0(42)	100.0(167)

## 2) 테러 대응 전담 조직의 유지

대한상공회의소의 2004년도 “테러위험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위기관리경영 분야에서도 60.2%가 테러 대응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고, ‘사태추이를 보면서 관망 중’이라는 답변도 34.0%인데 비해, ‘전담조직이 있다’는 응답은 2.9%에 지나지 않으며, ‘전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는 기업 역시 2.9%에 지나지 않았다.(대한상공회의소, 2005)

〈표 3 - 2〉 한국 기업의 테러대비 전담 조직 유무 현황

( )안은 응답 업체 수

구분	전체(% , 개)	대기업(% , 개)	중소기업(% , 개)
① 전담조직 있다	2.9(6)	7.1(3)	1.8(3)
② 설치 계획이다	2.9(6)	7.1(3)	1.8(3)
③ 사태추이를 보면서 관망 중	34.0(71)	54.8(23)	28.7(48)
④ 필요성 못 느낀다	60.2(126)	31.0(13)	67.7(113)
합 계	100.0(209)	100.0(42)	100.0(167)

평상시 기업 운영과 테러 사건 발생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기업 운영은 분명 다르다. 테러에 대한 대응은 초동 대응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다. 특히 테러에 대한 대응 조직은 기업에 대한 테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조직이다. 기업의 인적 혹은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상설 조직으로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非)상설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테러 대응 전담 조직은 비(非)상설일 경우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기업 내 대테러 경호·경비 전문가 총원 및 양성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물적 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테러 활동은 사전 예방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정세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테러 징후를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러에 대한 징후는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그리고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등을 포함한 많은 양의 수집된 정보에 대한 판단과 분석과 정보의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임무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은퇴한 전직 경찰 혹은 군 출신 경력을 근거로 고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테러 경호·경비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 그리고 실무적인 적용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충원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통해 기업체 스스로 대테러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현지 국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

테러 조직의 활동과 테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국가의 정부는 테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대테러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지인 사이에 외국의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크고 정부 역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대립하는 무장 조직이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혹은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상 국가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이형철, 1995: 48-49) 이때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세계 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민간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안전 문제를 검토할 경우 반드시 세계적인 시야에서 테러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테러조직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몇 개 정도의 테러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지의 여부, 둘째, 테러 발생 건수와 각 테러 사건의 자행 목적, 셋째, 해당 국가의 치안 능력과 대책의 효율성, 넷째, 해외 기업체에 대한 테러에 대한 현지 국가 민중들의 반응, 특히 테러가 소득의 재분배 등을 내걸어 민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 테러가 빈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검토 과정을 마치고, 기업이 테러의 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와 안전 대책을 세우면 테러 위협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 5) 현지 국가에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테러조직이 공격 목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선전적 효과이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 등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러 조직도 이와 같이 대상이 되는 표적을 이용해 취할 수 있는 선전 효과를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한다.

테러조직도 그들의 테러 행위를 받아주는 소비자, 즉 일반 대중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업은 현지 여론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낙후된 교육 및 병원 시설의 신설, 증축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등 장기적이고 대중적인 지지 획득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진출한 국가 국민들을 존중하고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에 대해 신뢰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행동을 직원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여론 전반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이들 기업체를 공격하는 테러 행위는 현지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테러를 자행하는 테러조직은 활동 및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즉,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테러 발생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난 1월 10일에 납치된 대우 근로자 9명의 신속한 석방은 현지인들에 대한 봉사 활동에 대한 노력에서 기인한 바 있다. 2003년 대우건설 본부가 있는 하트코트 항 인근 부족의 '명예 추장' 으로 추대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지인들에게 결혼 지원금을 마련해 주는 등의 노력이 조기 석방의 계기가 되었다.(동아일보, 2007. 1. 15)

## 2. 기술적 접근

### 1) 물리적 대테러 보안의 강화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의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사, 사업장, 거점사무소, 주재원 사택, 중요 부서 등에 대한 출입 통제(Access Control)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영진에게 배달되는 우편물 검사 등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역시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보안설비 강화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보안시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구체적인 물리적 대테러 보안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설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igital Video Recorder)의 구축, 테러 경고 시스템(Alarm System)의 구축 그리고 자살 테러 대비용 장벽 설치 등이 있다.



## 2) 관리적 대테러 보안의 강화

본사, 사업장, 거점사무소, 주재원 사택 등의 테러 위협 정보 수집,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테러 예고 또는 경고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위기는 정보부재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테러 리스크 상황 분석에 따라 위협 지역의 해외 주재원, 가족, 출장자 등에게 주의 환기, 해외출장 자제, 금지, 동반 가족의 대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적 보안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는 치안 및 정보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위협의 강도에 따른 보안 절차의 강화, 비상 연락망 가동, 대피 훈련 등이 구체적인 관리적 대테러 보안의 구체적인 예이다.

## 3) 테러대응직원 대상 대테러 교육 강화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는 테러는 개별 재난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재난이다. 테러가 화재로 이어지고, 건물 및 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사상자 후송 활동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테러에 대한 대응과 수습은 동시 다발적인 대응 활동을 요구하는 종합 재난 활동인 것이다.

그 어떤 재난이나 위기관리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테러 대응 및 수습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서 볼 때 테러 대응 및 수습 활동에 참가하는 직원들에 대한 평시 교육 및 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기업체에서는 테러 및 대테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테러 유형별 대응 및 수습 방법론 등에 대한 대테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 4) 근로자 대테러 행동 요령 교육 실시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은 예방 및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 교육은 사전 행동 요령에 대한 것으로 평소에 테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대응 교육은 사전 행동 요령에 따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요령과 관련된 교육이다.

예방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출퇴근 시, 출장 시,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테러범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행동 요령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응 교육의 구체적인 예는 인질로 납치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 요령 및 중장기적 행동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된다. 대테러 행동 요령에 관한 교육은 내부에 대테러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거나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외부 전문가를 필요시에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5) 테러대응매뉴얼 작성 및 활용

기업은 최악의 사태를 예상해 두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 기업 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근로자 혹은 주재원이 테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현지 체제를 어떻게 가동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본국의 대책 본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테러 대응과 관련된 상황 발생 시 누가 판단하며 누가 대응 활동을 총괄하여 지시할 것인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매뉴얼로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테러에 노출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조한태, 2004)

#### 6) 불측사태대응계획 강구

테러의 예방 및 경감 활동을 강화하더라도 테러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테러가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혼란이 발생하여 기업경영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불측사태대응계획은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상정하여 인적 그리고 물적 피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다. 불측사태대응 계획에는 건물 혹은 사무실 피난 계획, 평상시 비상 대비 훈련, 피해복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 피해복구 방안은 업무의 계속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므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테러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는데 많은 자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하여 기업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는 보험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테러 관련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다.(이형철: 1995, 281-291) 테러 발생 환경 하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인질납치 및 석방금 보험(Kidnap and Ransom Insurance: KRI)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KRI는 테러범들이 요구하는 인질 석방금 지불로 인한 손실의 보장은 물론 기업 자산의 손실, 업무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 강탈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보상 등이다.

## IV. 결 론

테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테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테러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테러조직의 공격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도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는 있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테러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테러조직들이 국제적인 대도시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물론이고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설 현장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테러조직에게 있어서 기업의 근로자를 납치하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 위협 부담이 없이 테러조직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테러이다. 거대 기업에는 납치한 인질의 석방을 위해 석방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고, 실제 지금까지 기업들이 때로는 수천만 달러의 거액을 몸값으로 지불해왔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익을 증대시키려면 그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산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적 자산이다. 테러조직은 중요한 자산인 인적 자산에 대해서 기업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즉,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돈을 벌기가 쉽고 실패의 위험이 적다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테러가 주는 영향이 단순히 기업의 금전적 손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가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쉽다. 그 결과는 바로 생산성의 저하로 직결된다.

테러 행위에 대하여 기업의 자사의 시설과 근로자들을 지켜야 하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을 지키는 것이 시설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 기계는 다시 구입하여 쓸 수 있지만 인명의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테러조직이 시설의 파괴와 함께 근로자들을 인질로 삼는 것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증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로 인해 기업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기업에 가해질 테러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테러 조직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미리 세워 유사시를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영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찰공제회(2006), 「특수경비」, 서울: 좋은 세상 미디어
- 국가정보원, 「테러로부터 안전한 해외생활」, 서울: 국가정보원
- 박준석(2006), 「뉴테러리즘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형철(1995), 「테러! 당신은 안전한가」, 서울: 세경자료사
- 조환태(2004), “테러위험 분석 및 대응방안”, 「위험관리」, 가을호
- 최진태·이영철(2004), 「폭탄테러 대응 매뉴얼」, 서울: 한국테러리즘연구소
-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최진태(2006), “국제 테러조직의 현황, 전략 및 전술”, 「군사저널」, 1월호
- 최진태(2005), “테러의 시대, 한국은 안전한가!”, 「위험관리」, 가을호
- 최진태(2004), “테러와 위험관리: 국제 테러의 발생현황과 추세”, 「위험관리」, 가을호
- Anderson, Sean K., and Stephen Sloan(2002), *Historical Dictionary of Terrorism*, Lanham, MD: Scarecrow Press, Inc.
- Aviv, Juval(2004), *Staying Safe*, New York: HarperResource
- Aviv, Juval(2003), *The Complete Terrorism Survival Guide*, New York: Juris Publishing
- Banlaoi, Rommel C.(2004), *War on Terrorism in Southeast Asia*, Manila: Rex Book Store
- Buck, George(2002), *Preparing for Terrorism: An Emergency Services Guide*, London: Delmar Publishers
- Clutterbuck, Richard(1990), *Terrorism and Guerrilla Warfare: Forecasts and Remedies* (London: Routledge
- Gunaratna, Rohan(ed)(2003), *Terrorism in the Asia-Pacific: Threat and Response*, Singapore: Western Universities Press
- Gunaratna, Rohan(ed)(2004), *The Changing Face of Terrorism*, Singapore: Western Universities Press
- Hoffman, Bruce(2001), “All You Need Is Love: How the Terrorists Stopped Terrorism.” *Atlantic Monthly* (December)
- Hoffman, Bruce(1998), *Inside Terror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queur, Walter(ed)(2004), *Voices of Terror*, New York: Reed Press
- Rivers, Gayle(1987), *The War against the Terrorists: How to Win It*, New York: Charter Books
- Tan, Andrew & Kumar Ramakrishna(eds)(2002), *The New Terrorism: Anatomy, Trends and Counter-Strategies*, Singapore: Western Universities Press
- Taylor, Max, and John Horgan(ed)(2000), *The Future of Terrorism*, Portland: Frank Cass Publishers

## ABSTRACT

### **A Study on the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Strategy for Korean Companies Engaged in the Overseas Business**

Jin-Tai Choi

June 2006, five Korean oil workers, three who worked for Daewoo and two for Korea Gas, released after being held hostage by separatist militants in Nigeria. The kidnapping was happened in the Niger Delta where armed separatists are demanding a larger share in oil revenu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estruction due to oil exploration. Seven months later, nine Korean pipeline workers of Daewoo together with a Nigerian were kidnapped again and safely released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company and the Korean government. These two kidnapping incidents have shown that companies engaged in the overseas business are not safe any more from the terrorist attacks and has given an invaluable lesson that the company having an intention to go abroad for business should take all possible anti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strategy against terrorist attacks on the private companies at the overseas. In order to fost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 brief history of terrorism is presented in the first par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s and describes the variation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private companies together with the terrorism related environment of Korea. Based on the outcome of the study, this paper takes a global view and perspectiv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private companies and suggests consideration for the future.

**Key Words: Terrorism, Kidnapping,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t Attacks, Security Strategy, Protection**